

## 張景岳의 命門學說에 관한 文獻的 考察

金圭烈 · 洪元植

### A Literatural Investigation into Jang Gyung - Ak's Theory of Myungmun

Kim Gyu-Yeol, Hong Won-Sik

Dep. of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As a result, the investigation into Gyung-Ak (景岳)'s theory of Myungmun (命門) was led to the next conclusions.

First, Gyung-Ak (景岳) defined Myungmun as the gate of Suncheon (先天) and Whoocheon (後天), by which the life of Suncheon is obtained and the life of Whoocheon is maintained.

He maintained that Myungmun is located between two kidneys, not sided to the right as in the Nankyeong (難經), and considered the substance of Myungmun as Jagung (子宮 ≡ uterus) or the other names as such Jaho (子戶), Jajang (子腸) Danjeon (丹田), Hyeolsil (血室), etc.

On the essence or function of Myungmun it was considered as Taegeuk (太極) of the body which shapes the North Pole in the center of the body, and as the hinge of rise and fall, as controller of Soowha-action (水火作用) and Eumyang-changing (陰陽變化), and as storage of Suncheon Jinil-ki (先天眞一之氣), the source of life and vitality and as the spring of Twelve-Jang (十二藏). Thus, the function of Five-Jang (五臟 ≡ Five-Viscera) and Six-Boo (六腑 ≡ Six-Bowels) and actions of life is obtained by Myungmun, and the life and death of man and the change of life is related to that.

Bi-Wi (脾胃 ≡ Spleen & Stomach) as well as Myungmun is the root of Five-Jang and Six-Boo, but since Bi-Wi is the base of postnatal nutrition to belong to the son of Wonyang (元陽), Myungmun is treated more important as the mother of Bi-Wi.

Sin (腎 ≡ Kidney) was perceived as inseparably related with Myungmun, but

in the course of theoretical development the function of Sin was considered to be ultimately operated by the action of Myungmun.

In the Theory of Jineum ( 眞陰論 ), Gyung-Ak full accounted the diverse nature of disease and patholog from Soowha-shortage of Myungmun, and presented the laws and methods of medical treatment to those.

Finally, in his theory related to Myungmun, some logical contradiction and confusion in conceptions was discovered and the anatomy of Present age proved that the location of Jagung and DanJeon, which he recognized as the substance of Myungmun, is not coincided.

Summerizingly, the Gyung-Ak's theory of Myungmun closely related the theory of Myungmun to the theory of Eumyang-Jungki ( 陰陽精氣論 ), by whole discourse of the characteristics of physiology possessing Soowha of Myungmun on the foundation of Eumyang-hogeun ( 陰陽互根 ) and Jungki-hosaeng ( 精氣互生 ).

Gyung-Ak regarded the function of Myungmun a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Jang, discoursed more systematically and more specifically about the Myungmun than any others, and presented the theory of Sin-Myung ( 腎命理論 ) and prescription which is important to Care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 養生治病 ), thus influenced very greatly on the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ine.

KYOBOKU  
교보문고

## I. 緒 論

漢醫學은 戰國時代初에서 後漢時代의 사이에 著述된 것으로 推測되는<sup>1)</sup> 〈黃帝內經〉에서 이미 그 理論的 基礎가 確立되었으며, 東漢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그 臨床的 基礎가 定立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다채로운 理論과 풍부한 臨床經驗의 結合에 의해 完全히 開花·結實을 하게 된 것은 金·元代以後 明·清代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金·元代에서 清代로 이어주는 明代야말로 漢醫學이 學術적으로 가장 꽃피웠던 時期라 할 수 있는데, 그 中에서도 薛己·趙獻可·孫一奎·張景岳·李中梓 등을 中心으로 한 溫補派가, 明代 醫學의 主流를 이루면서 金元四大家說에 대한 批判과 命門·三焦 등에 관한 열띤 論爭을 通하여 漢醫學의 理論을 더욱 다채롭게 體系化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筆者는 溫補派의 가장 中心 人物이라 할 수 있는 張介賓의 醫學思想을 깊이 研究하는 것이 곧 漢醫學의 理論과 臨床을 아울러 잘 할 수 있는 한 方法이 된다고 보아 張介賓의 醫學思想을 研究하게 되었다.

張介賓은 字는 會卿, 號는 景岳, 別號는 通一子이며, 明代 山陰 會稽縣(今 浙江 紹興) 사람으로,<sup>2)</sup> 明·世宗 嘉靖 42年(서기 1563年)에 태어나 明·毅宗 崇禎 13年(서기 1640年)에<sup>3)</sup> 78歲로 卒하였다.

景岳은 어려서부터 明慧好學하고 讀書를 좋아하였으며, 열 서너살 때에 定西侯의 門客으로 있던 부친 張壽峰을 따라 京師에 가서 奇才異士, 賢者能人과 널리 사귀고, 아울러 京師의 名醫 夢石先生 金英에게 數年 동안 醫學

을 배워 그 傳을 모두 얻었으며, 뒤에 그 父親의 가르침을 따라 〈內經〉을 研讀하였다. 그는 悉心으로 醫學을 배우는 外에, 또한 韜鈴(兵法)을 攻習하고 아울러 諸家를 博覽, 經史에 精通하고, 天文·地理·兵法·易理·術數·音律 등에 모두 능히 궁구하였는데, 특히 易學과 〈內經〉에 精深한 造詣가 있었다.<sup>4)</sup>

景岳은 뛰어난 醫療技能을 가지고 治病함에 病原을 深思熟考하여 單方重劑<sup>5)</sup>로 깨끗하게 효험을 보지 않음이 없어서 時人이 仲景·東垣에 比하였으며, 醫術로 萬歷·天啓 年間に 이름을 날렸다. 壯年에는 일찌기 軍에 몸을 담아 北方에 游歷하였으나, 뒤에 功名에 失意하여 58세의 나이에 慨然히 歸里하여 배운 바를 모두 버리고 오직 醫學에 專念하고, 아울러 舊志著述하여 終年에 이르니 享壽 78세였다.<sup>4)</sup>

景岳은 醫學理論上 持久不懈의 探索을 하고 實踐上 豊富한 臨床經驗을 쌓았으며, 아울러 이 兩者를 結合하여 許多한 創造的인 見解와 獨特한 治療原則을 總結, 提出하였다.<sup>4)</sup> 그는 일생 동안 著述에 힘써서<sup>4)</sup> 〈類經〉·〈類經圖翼〉·〈類經附翼〉·〈景岳全書〉·〈質疑錄〉 등을 남겼는데,<sup>6)</sup> 開拓에 용감하여 繼承을 잘하고도 創新함이 있었으며, 매우 커다란 學術的 成就가 있어서 醫學 發展에 顯著한 貢獻을 하였다.<sup>4)</sup>

要컨대, 景岳은 理論과 實踐經驗을 兼備하여 能히 繼往開來, 承前繼後했던 一位의 一代 醫學大師였다.<sup>6)</sup>

그는 醫學理論方面에 있어서 初期에는 朱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說을 상당히 信服하였으나, 中年以後에는 〈內經〉의 ‘陰平陽秘 精神乃治’ 등의 道理에 근거하여, 朱丹

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說에 대해 크게反對하여 ‘陽非有餘, 陰常不足’, ‘人體虛多實少’等理論을提示하고, 치료상 眞陰·元陽을 溫補하고 寒涼攻伐하는 方藥을 慎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臨床에 溫補方劑를 常用하였으므로 後世에 一代 溫補宗師로 일컬어졌으며, 後世醫學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sup>7)</sup>

筆者는 以上과 같은 張景岳의 醫學思想을 研究하고자 함에 있어, 後世에 그가 溫補派로 일컬어지게 된 重陽主補의 醫學思想이 그의 命門學說과 매우 密接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그의 著書인 <類經附翼>·<景岳全書>·<類經圖翼>·<質疑錄> 등에 실려 있는 關聯 論述들을 中心으로 그의 命門學說에 대해 자세히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는 또한 三焦와 더불어 醫史學的으로 가장 열띤 論爭의 대상이 되어 왔던 命門에 대한 理解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便宜上 景岳의 命門學說을 考察하기에 앞서 歷代醫家들의 命門學說을 概觀한 다음, 景岳의 命門에 關한 論述들을 翻譯 原文<sup>8)</sup>으로 싣고 이를 分析·考察한 뒤에 끝으로 結論을 맺고자 한다.

## II. 歷代 醫家들의 命門學說에 대한 概觀

命門學說은 命門의 位置·本質·機能 및 養生·治病에 있어서의 作用에 대해 研討되어 온 學說로서,<sup>9)</sup> 한의학의 藏象學 중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바, 命門의 實質 및 機能에 대

한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 意義와 臨床價値가 있다.<sup>10)</sup> 따라서 金·元代 이후 한의학의 이론이 다채롭게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歷代 醫家들의 命門에 대한 論說도 많이 있어 왔으며,<sup>11)</sup> 現代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완전한 定立을 보지 못하여 現代과학적 지식의 流入과 함께 다소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sup>12)</sup>

命門學說의 形成과 發展段階는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는 바, 제 1단계는 命門學說의 기초 내지 初步가 형성된 단계로, 秦越人の <難經>이 그 代表가 되며, 제 2단계는 命門學說이 발전·성숙된 단계로 明代 이후 溫補學派의 형성·발전과 그 軌를 같이 하며, 제 3단계는 現代에 와서의 近 30년간으로, 주로 命門學說의 理論整理 및 臨床運用과 實驗研究를 통한 命門의 實質에 대한 探討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 1. 命門學說의 始源

命門이란 말은 <靈樞·根結篇>에서, “太陽根起於至陰, 結於命門, 命門者, 目也.”라고 한 데에서 처음 나왔는데, 여기서의 命門은 足太陽膀胱經의 睛明穴을 지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後世에서 辨論하는 命門과는 그 含義가 같지 않으므로 이름은 같지만 실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sup>14)</sup>

따라서 命門學說의 發端은 秦越人の <難經>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難經·三十六難>에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知腎有一也.”라 하고 <同·三十九難>에 “五藏亦有一

六藏者, 謂腎有兩藏也, 其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精神之所舍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其氣與腎通, 故言藏有六也.”라 하여, 命門의 意義 및 生理機能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인 簡要한 論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命門이 다음 세 측면의 의의를 包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命門이 ‘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로서 人體生命의 근본이 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男子의 藏精하고 女子의 繫胞하는 人體의 生殖機能이 命門에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命門의 氣가 腎과 相通한다고 하여 命門과 腎이 비록 左右의 分은 있지만 생리기능상 명확히 分割하기 어렵다는 점이다.<sup>15)</sup> <難經>의 以上の 論述이 後世의 右腎命門說의 근거가 되고 있는 내용이며, 한편 <難經·八難>에 “諸十二經脈者, 皆繫於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藏六府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이라는 論述이 또 있는데, 후세에 이를 <同·三十六難>에 命門이 “原氣之所繫”라고 한 내용과 관련시켜서 腎間動氣가 곧 命門이라는 說이 나오게 되는 바, 이 文章이 또한 후세 모든 腎間動氣說의 命門의 本質 내지 기능과 相關한 中心內容을 이루게 된다.

## 2. 右腎命門說(左腎右命門說)

이는 上述한 바와 같이 <難經>에서 倡導된 것으로, 후세에 상당한 影響을 끼쳤으며, 明代 이전 醫家들이 이 說을 많이 좇았는데,<sup>16)</sup> 晉의 王叔和, 元의 滑壽, 明의 薛己·李梴 등이 그 代表 醫家이다.

王叔和(서기 3세기 전반기)는 <脈經>

에서 <脈法贊>을 引用, “肝心出左, 脾肺出右, 腎與命門俱出尺部.”라 하고,<sup>16)</sup> <脈訣瓊瑣·脈賦>에는 “腎有兩枚, 分居兩手尺部, 左爲腎, 右爲命門.”이라고 하여, <難經>의 右腎命門說을 추종함과 동시에 命門의 脈診部位까지 제출하고 있다.<sup>17)</sup>

滑壽(서기 1304-1386)는 <難經本義·三十六難 注>에 “腎之有兩者, 以左者爲腎, 右者爲命門也. 男子於此而藏精,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也; 女子於此而繫胞, 是得精而能施化, 胞者受胎之所也. 原氣謂臍下腎間動氣, 人之生命, 十二經之根本也.”라고 하여 右腎命門說을 따르고는 있으나, 그 뒤에 이어서 다시 “此篇言非皆腎也. 三十九難亦言左爲腎右爲命門, 而又云 ‘其氣與腎通’, 是腎之兩者, 其實則一爾.”라 하고, 또 <同·三十九難 注>에 “腎之兩, 雖有左右命門之分, 其氣相通, 寔皆腎而已.”라고 하여, 其實 後述하는 兩腎總號命門說의 先導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薛己(서기 1488-1558)는 <明醫雜著·癆瘵 注>에서 “若左尺脈虛弱而細數者, 是左腎之眞陰不足也, 用六味丸; 右尺脈遲輕, 或沈細而數欲絕者, 是命門之相火不足也, 用八味丸.”<sup>16)</sup>이라 하여, 右腎命門說을 臨床에 연결시켰다. 薛己의 이러한 觀點은 후세 趙獻可와 張景岳의 命門說에 깊은 影響을 끼쳤다.

李梴(기원 16세기, 1575년 전후)은 <醫學入門·臟腑總論><sup>18)</sup>에서, “臟亦有六者, 謂腎有兩臟, 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精神之所舍也. 男以藏精, 女以繫胞, 其氣與腎相通, 故言臟亦有六也.”라 하고, <同·臟腑條分><sup>19)</sup>에서 “命門下寄腎右, 而系曲透膀胱之間((注: 命門, 卽右腎. 言寄者, 命門非正臟, 三焦非正腑也. 命門系曲屈下行, 接兩腎之系, 下尾間, 附

廣腸之右，通二陰之間，前與膀胱下口，於溲溺之處，相并而出，乃是精氣所泄之道也。若女子則子戶胞門，亦自廣腸之右膀胱下口，相并而受胎，故氣精血脈腦，皆五臟之真，以是當知精血來有者矣))，(中略)，配左腎以藏真精，男女陰陽攸分((注：命門爲配成之官，左腎收血化精，運入藏諸命門。男以此而藏精，女以此而系胞胎))，相君火以繫元氣，疾病死生是賴((注：相火之臟，元氣繫焉。凡病雖危，命脈有神者生，命脈無神者死))，……蓋其同者，有形之質，均屬乎水；其異者，無形之火，不司乎寒。司天既有寒暑之分，在人豈無水火之分？((注：腎合膀胱，左尺之脈純乎水；命合三焦，右尺之脈純乎火)) 似同而實異者，陰陽之所以爲妙也；宜靜不宜動者，左右之所以相同也。”라 하여 <難經>의 右腎命門說을 크게 闡發하였다. 그러나 李挺은 六臟六腑 中에 心包를 命門으로 대신하여, 위 引用文章 中의 “(中略)”부분에 “上爲心包，而膈膜橫連脂漫之外((注：心胞即命門。其經手厥陰，其腑三焦，其臟心胞絡，其部分在心下橫膈膜之上。豎斜膈膜之下，與橫膜相粘。其處黃脂漫包者，心也。其漫脂之外，有細筋膜如絲，與心肺相連者，此胞絡也。))”라 하고, “……”부분에 心胞脈과 心胞支脈의 病症을 아울러 싣고 있으며, 六臟六腑 中의 腎에 대해서는 <同臟腑條分>에서 “腎有兩枚，左屬水而右屬火，重各九兩，右主女而左主男((注：左右兩枚共一斤二兩。男以左腎爲主，女以右腎爲主。))”라고 하여, 其實 三焦와 表裏相合關係에 있는 心胞를 命門으로 보고, 그 系가 屈曲下行하여 兩腎의 系에 接하여 兩腎과 相通하며 右腎에 寄하여 그 機能作用을 하는 것으로 본 듯하다.

以上の 左腎右命門說에 대하여 明代以後의 醫家들은 대체로 同意하지 않는 觀點을 취하

고 있는 바, 다음의 兩腎總號命門說과 腎間命門說이 그 代表이다.

### 3. 兩腎總號命門說(兩腎命門說)

虞天民(서기 1438-1515년)은 <醫學正傳·或問(제 14조)>에서, 人身의 兩腎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모양도 같고 색깔도 다르지 아니한데 어째서 左腎은 水에 屬하고 右腎은 火에 屬한다고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의문을 먼저 제기한 뒤에, 비록 陰陽의 靜하고 動함과, 左右로 陰陽剛柔를 나눌 수 있는 속성을 좇아 이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右腎만을 홀로 가리켜서 命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兩腎이 본디 眞元의 根本이며 性命의 所關이니, 비록 水臟이 되기는 하지만 實은 그 가운데에 相火가 寓하고 있어서 水中의 龍火와 같이 그 動함을 因하여 發한다.”고 闡明하여, “마땅히 兩腎을 모두 命門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부연 설명하기를 “오직 그것이 靜하여 闔하고 있을 때는 一陰의 眞水를 涵養하고, 動하여 開할 때는 龍雷의 相火를 鼓舞한다.”고 하였다.<sup>20)</sup>

虞天民이 위 說을 闡發한 뒤에 李時珍·孫一奎·趙獻可·張景岳 등이 모두 紛紛하게 다음과 같은 ‘命門이 兩腎間에 있다’는 說을 提出하였다.

### 4. 腎間命門說

腎間命門說은 대략 대표적인 다음의 3가지 說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命門이 兩腎 中間에 위치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일치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多少間에 서로 같

지 않은 점이 있다.

#### (1) 腎間動氣爲命門說(動氣命門說)

明·孫一奎(서기 1522-1619)는 <醫旨緒餘·命門圖說><sup>21)</sup>에서, <難經>의三十六難과 八難의 基礎 위에 <易經>의 萬物의 產生이 太極과 陰陽二氣의 動靜變化의 結果라는 哲學思想을 結合하여 命門이 兩腎間에 存在하는 ‘生生不息之機’의 腎間動氣라는 說을 提出하였다.<sup>22)</sup> 그는 “天人一致之理, 不外乎陰陽五行. 蓋人以氣化而成形者, 即陰陽而言之. 夫二五之精, 妙合而凝, 男女未判, 而先生此二腎, 如豆者菓實, 出土時兩瓣分開, 而中間所生之根蒂, 內含一點眞氣, 以爲生生不息之機, 命曰動氣, 又曰原氣, 稟於有生之初, 從無而有, 此原氣者, 即太極之本體也. 名動氣者, 蓋動則生, 亦陽之動也, 此太極之所以行也. 兩腎, 靜物也, 靜則化, 亦陰之靜也, 此太極之體所以立也.”라고 하여, 兩腎間의 命門原氣 즉, 動氣를 人身의 太極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초 위에 “命門乃兩腎中間之動氣, 非水非火, 乃造化之樞紐, 陰陽之根蒂, 即先天之太極. 五行由此而生, 臟腑以繼而成. 若爲屬水屬火屬臟屬腑, 乃是有形質之物, 則外當有經絡動脈, 而形於診, <靈>·<素>亦必著之於經也.”라고 하여, 命門이 비록 兩腎 中間에 위치하긴 하나, 이는 일종의 生生不息하는 動氣의 所在일 뿐 결코 形質을 具有하고 있는 藏器가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이어서 秦越人이 原氣를 命門이라고 하지 않고 右腎이 命門이라고 한 것은, “此越人之妙處, 乃不言之言也. 言右腎, 則原氣在其中矣. 蓋人之所貴者, 莫非氣血, 以左血右氣也.”라고 하여, 左血右氣의 觀點에서 말한 것이지 實質 右腎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닌 것으로

보아 護經의 입장을 취했다.

孫一奎는 또 命門의 屬性에 관해서도 同 論文에서, “<難經>雖有命門之說, 并無左右水火之分, 何後人妄臆指命門屬相火邪? 顧<靈>·<素>三陰三陽·手足十二經, 配合皆有定偶, 以象十二時·十二月·十二律之意. 今又以命門爲屬火, 則當統之於何經? 十二經既無所統, 則兩腎皆屬少陰水可知.”라 하여, 命門屬相火說을 否定함은 물론, 이어서 命門配三焦屬相火說에 대해서도, 三焦는 手少陽經으로 手厥陰經에 配하여 表裡가 되니, 手經에 手經을 配하고 火에 火를 配하여 定偶가 되는 것이라고 하여 아울러 부정 한 뒤, 命門三焦表裡의 說은 아마 <金匱眞言論>의 王注에 <正理論>을 인용하여 “三焦者, 有名無形, 上合手心主, 下合右腎.”이라고 한 말을 誤解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무릇 人身의 臟腑는 一陰一陽으로 스스로 定해진 짝이 있어서 一經兩配의 이치가 없으니, ‘上合手心主’라고 한 것은 그(三焦와 手心主의) 表裡關係를 바로 말한 것이며, ‘下合右腎’이라고 한 것은 三焦가 元氣之別使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醫旨緒餘·右腎水火辨><sup>23)</sup>에서, 腎의 象을 坎卦에서 取하여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居함을 보고 一陽을 가리켜 火라고 한다면, 離卦의 一陰이 二陽의 사이에 居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라는 反問을 제기하고, “夫物物具五行, 五行一陰陽, 陰陽一太極, 五藏均有此金木水火土, 何乃指坎中之陽爲火, 指右腎爲少火也? 坎中之陽, 即兩腎中間動氣, 五藏六府之本, 十二經脈之根, 謂之陽則可, 謂之火則不可, 故謂坎中之陽, 亦非火也. 二陰即二腎也. 腎既皆陰, 則作一水一火并看者, 亦非矣. 不然, 坎中之陽, 尙不可以火

目之，而右腎又何可以屬火哉？／”라 하여，坎中の 一陽은 곧 兩腎中間動氣로서 陽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火라고 할 수는 없으며，坎中の 二陰은 兩腎으로 모두 水에 屬하므로 右腎을 火에 屬한다고 할 수는 더욱 없다고 하였다. 그는 또 〈赤水玄珠·卷二十七·腎無痘癍〉<sup>24)</sup>에서, “秦越人謂兩腎中間動氣者，五臟六腑之本，十二經脈之根，呼吸之門，三焦之原，臟腑從此而生，故人之所以不得死者，賴此動氣以爲生生不息之根。有是動則生，無是動則呼吸絕而物化矣。”라 하여，命門動氣가 사람이 生存할 수 있는 呼吸기능의 根本이라고 보았다.

## (2) 小心命門說

明·趙獻可(서기 1573-1644년)는 〈醫貫·內經十二官論〉<sup>25)</sup>에서, “兩腎俱屬水，但一邊屬陽，一邊屬陰。越人謂左爲腎右爲命門，非也。命門即在兩腎各一寸五分之間，當一身之中，〈易〉所謂一陽陷于二陰之中，〈內經〉曰‘七節之傍，(中)有小心’是也。名曰命門，是爲眞君眞主，乃一身之太極，無形可見。兩腎之中，是其安宅也。……命門無形之火在兩腎有形之中。”이라고 하고，한걸음 더 나아가 “命門在人身之中，對臍附脊骨，自上數下則爲十四椎，自下數上則爲七椎，〈內經〉曰‘七節之傍，(中)有小心。’此處兩腎所寄，左邊一腎屬陰水，右邊一腎屬陽水，各開一寸五分，中間是命門所居之宮。”이라고 하여，〈難經〉의 右腎命門說을 부정하고，人身에 있어서의 命門의 구체적 부위를，척추의 위로부터 세어서 제 14 추，아래로부터 세어서 제 7추에 해당하는 兩腎中間의，배 쪽을 마주 보고 있는 곳이라고 제시하고，이곳이 바로 〈內經〉에 이른 바，‘七節之傍，(中)有小心’이라고 한 곳이라 하여，小心命門說을

提出하였다.<sup>26)</sup>

趙獻可는 同 論文에서，〈素問·靈蘭秘典論篇〉에 “心者君主之官，……主不明，則十二官危。”라고 한 말에 근거하여，心은 十二官의 하나에 불과하고 人身엔 心이 아닌 別主가 존재하는데，그것이 바로 十二官의 眞君眞主인 命門이라고 주장하고，“……可見命門爲十二經之主。腎無此則無以作強，而技巧不出矣；三焦無此則三焦之氣不化，而水道不行矣；脾胃無此則不能蒸熟水穀，而五味不出矣；肝膽無此則將軍無決斷，而謀慮不出矣；大小腸無此則變化不行，而二便閉矣；心無此則神明昏，而萬事不能應矣，正所謂主不明則十二官危也。”라 하여，命門을 十二官의 上에 두어 人身臟腑에 대한 主宰作用을 강조하였으며，그 本質을 “無形屬火”의 “一身之太極”으로 보고，“氣血之根，生死之關，十二經之綱維”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趙氏는 養生·治病에 一貫되게 溫補命門으로 主를 삼았다. 그는 특히 命門의 先天水火를 重視하여 命門水火不足의 辨治에發揮한 바가 매우 많았으며，六味丸과 八味丸의 應用에 대하여 深入한 闡發을 하였다.<sup>27)</sup> 그는 同 論文中에서 “命門君主之火，乃水中之火，相依而永不相離也，火之有餘，緣眞水之不足也，毫不敢去火，只補水以配火，壯水之主，以鎮陽光；火之不足，因見水之有餘也，亦不必瀉水，就于水中補火，益火之原，以消陰翳。”라 하고，前者는 六味丸으로，後者는 八味丸으로 그 主劑를 삼았다.<sup>27)</sup>

## (3) 子宮命門說

이는 明·張景岳에 의해 倡導된 것으로，<sup>28)</sup> 그 구체적인 내용은 本論에서 자세히 論及될 것이므로，여기서는 다만 簡略하게 소개만 하

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子宮은 현대 해부학에서 말하는 子宮과는 그 涵義가 같지 않다.

景岳은 兩腎中間, 氣海·關元의 사이에 있는 子宮이 命門인데, 子宮은 男女의 通稱으로, 女子에 있어서는 產門이고 男子에 있어서는 精囊(精室)인 바, 그곳이 바로 腎의 藏精之所라고 하였다.

景岳은 또한 <類經附翼·求正錄·三焦包絡命門辨><sup>(1)</sup>에서, “兩腎者, 坎外之偶也; 命門一者, 坎中之寄也. 一以統兩, 兩以包一, 是命門總主乎兩腎, 而兩腎皆屬於命門.”이라고 하여, 命門과 腎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故命門者, 爲水火之府, 爲陰陽之宅, 爲精氣之海, 爲死生之寶.”라 하고, 또 <景岳全書·傳忠錄·命門餘義><sup>(5)</sup>에서, “命門爲元氣之根, 爲水火之宅. 五藏之陰氣, 非此不能滋, 五藏之陽氣, 非此不能發.”이라 하고, 또 <類經附翼·眞陰論><sup>(7)</sup>에서 “命門之火, 謂之元氣; 命門之水, 謂之元精.”이라고 하여, 命門의 人體에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과 동시에 命門이 陰陽水火的 二氣를 兼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陰陽水火的 相互制約, 相互爲用的 작용을發揮하고, 腎陰·腎陽의 理論에 대한 기초를 세웠다.<sup>(29)</sup>

以上の 右腎命門說·動氣命門說·小心命門說·子宮命門說이 이 外의 모든 命門學說의 源流라고 할 수 있는 바, 明·清代 諸家の 命門學說은 其實 以上の 네가지 說中 —특히 小心命門說과 子宮命門說 中에서 어느 하나의 說을 宗으로 삼고 그 外의 說을 참조하여 약간의 자신의 의견을 가미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30)</sup> 그 代表的인 例로, 淸·陳士鏞

(기원 17세기, 1687-1693년 전후)은 命門이 先天之火라는 說을 주장했는데,<sup>(31)</sup> 그 基本觀點이 대체로 趙獻可와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 淸·程知는 心包絡이 곧 子戶·子宮·丹田이며 命門이라는 說을 주장했는데,<sup>(32)</sup> 기본적으로 景岳의 子宮命門說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 外에 淸·徐大椿(서기 1693-1771년)은 <雜病源·命門>에서 “命門爲元氣之根, 眞火之宅”이라고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상당부분에 景岳의 文章을 그대로 襲用하여 論述하고 있으며,<sup>(33)</sup> 淸·陳修園(서기 1736-1820)은 景岳說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sup>(34)</sup>

以上으로 歷代 諸家の 命門學說을 概觀했거니와 이를 종합해 본다면, 命門에 관한 論爭은 주로 그 部位가 右腎이나 兩腎이나 또는 兩腎中間이나와, 그 形態가 있느냐 없느냐와, 그 屬性에 있어서 主火나 水火共主나 非水非火의 動氣나에 歸着이 되며, 이와 같이 의견이 紛紛한 가운데서도 命門에 대한 대체적인 공통된 인식은, 命門이 腎과 不可分の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五臟六腑, 十二經脈의 모든 生理活動의 根本 및 動力이 되며, 이와 같이 機能이 重要하여 人體에 있어서 生命의 門과 같으므로 命門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命門의 屬性에 대해서 대체로 (先天之)火 내지 元陽 또는 眞陽으로 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5)</sup>

### Ⅲ. 景岳의 命門學說

景岳은 命門의 意義, 位置, 機能, 地位 等 諸方面에 걸쳐서 역대의 어느 醫家보다도 많

은 전문적인 論述을 하였는데, 이제 그의 命門에 관한 論述部分을 번역 원문으로 먼저 一覽하고 이에 대한 考察을 해보고자 한다.

## 1. 命門에 관한 論述

### (1) 「三焦·包絡·命門辨」

(前略)<sup>36)</sup> 客이 말하기를 “이미 三焦와 心主가 表裡가 된다면 어찌하여 다시 命門과 三焦가 表裡가 된다는 說이 있습니까?” 말하기를, “三焦와 包絡이 表裡가 된다는 것 — 이는 內經에서 一陰一陽으로 定해 놓은 짝이며, 처음에는 命門 表裡의 說이 없었고 또한 命門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靈樞〉의 根結·衛氣와 〈素問〉의 陰陽離合 등의 篇에 이르기를, ‘太陽根起于至陰, 結于命門, (命門者, 目也).’라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太陽經穴이 睛明에서 끝나는데, 兩 睛明穴의 사이가 바로 腦心<sup>37)</sup>이라 至命한 곳이 되므로 命門이라 한 것입니다. 이 밖에 左右腎을 구분함도 없을 뿐더러 또한 右腎이 命門이라는 說도 없습니다. 命門의 시작 또한 三十六難에,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라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王叔和가 마침내 이를 因해서 말하기를, ‘腎與命門, 俱出尺部’라고 함으로써 후세에 드디어 命門 表裡의 짝지움이 있게 되었으나 〈內經〉에는 實로 없는 것입니다.”

客이 말하기를, “〈內經〉에 이미 命門이 없는데, 〈難經〉에는 어째서 있습니까? 그리고 命門은 결국 어떠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難經〉의 諸篇이 모두 〈內經〉에서

나왔으니 이 命門도 아마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너무 오래 전 옛날인지라 疇말 七難에 대한 滑氏의 注<sup>38)</sup>에 이른 바와 같이 經文에 脫誤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만, 右腎이 命門이고 男子가 이로써 精을 藏한다면 左腎은 장차 무엇을 藏하며, 女子가 이로써 胞를 繫하고 있다면 胞는 과연 어떠한 것이길래 오직 右腎에만 繫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제가 그래서 諸書를 歷考해 보니, 〈黃庭經〉<sup>39)</sup>에 말하기를, ‘上有黃庭下關元, 後有幽闕<sup>40)</sup>前命門.’이라 하였고, 또 ‘閉塞命門似玉都’라 하였고, 또 ‘丹田之中 精氣微, 玉房之中神門戶’라 하였으며, 梁丘子 注에 말하기를, ‘男以藏精, 女以約血, 故曰門戶.’라 하였고, 또 ‘關元之中, 男子藏精之所’라 하였으며, 元陽子가 말하기를, 命門者, 下丹田 精氣出飛之處也.’라 하였는데, 이는 모두 醫家에서 말하지 않은 바이나, 실로 足히 이를 發明한 것이 됩니다. 또 〈脈經〉에 말하기를, ‘腎爲膀胱合爲府, 合于下焦, 在關元後, 左爲腎, 右爲子戶.’라 하였고, 또 ‘腎名胞門子戶, 尺中脈也.’라 하였는데, 여기서 ‘右爲子戶’라고 말한 것은 곧 오른쪽 것이 命門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말을 자세히 詳考해 봄에 묵묵한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子戶’라고 하는 것은 곧 子宮으로, 玉房의 가운데이며, 俗名으로 子腸이라 하며, 直腸의 앞 膀胱의 뒤, 關元和 氣海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男精·女血이 모두 여기에 保存되어 있어서 자식이 이를 말미암아 生합니다. 그러므로 子宮은 실로 男女의 通稱입니다. 道家에서는 九還七返<sup>41)</sup>의 基가 되므로 丹田이라고 하며, 醫家에서 衝任脈이 여기에 盛하면 月經이 있게 되

므로 이름하여 血室이라고 합니다. 葉文叔이 말하기를, ‘人受生之初, 在胞胎之內, 隨母呼吸, 受氣而成. 及乎生下, 一點元靈之氣, 聚于臍下, 自爲呼吸. 氣之呼接于天根, 氣之吸接于地根. 凡人之生, 唯氣爲先, 故又名爲氣海.’라 하였는데,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실은 한 子宮일 뿐입니다. 子宮의 아래에 한 門이 있는 바, 여자의 경우엔 가히 손으로 더듬어서 알 수 있으니 속인이 이름하여 產門이라 하며, 男子의 경우에는 精泄할 때에 關闕이 있음을 스스로 느껴 알 수 있습니다. 請하여 묻건대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請컨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 身形이 아직 생기지 않은 처음, 父母가 交會할 즈음에 남자의 施泄이 이 門을 말미암아 나오게 되고 여자의 攝納도 이 門을 말미암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胎元이 이미 充足해지면 다시 이 門을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바, 그 나오고 들어감에 모두 이 門을 말미암으니, 先天의 立命하는 門戶가 아니라고 이르겠습니까? 이미 출생함에 이르면 三焦의 精氣가 모두 여기에 저장됩니다. 그러므로 <金丹大要><sup>42)</sup>에 말하기를, ‘氣聚則精盈, 精盈則氣盛.’이라 했고, 梁丘子가 말하기를, ‘人生繫命于精.’이라 했으며, <珠玉集>에 말하기를, ‘水是三才之祖, 精爲元氣之根.’이라 하였으니, 精이 去하면 氣도 去하고, 氣가 去하면 命도 去할 것인 바, 그 공고함과 去함이 모두 이 門을 말미암음이니, 後天의 立命하는 門戶가 아니라고 이르겠습니까? 또 四十四難을 보면 ‘七衝門’<sup>43)</sup>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 出入하는 곳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출입하는 곳은 모두 門이라고 이르거니와, 이 一門은 가장 큰 要所가 되는데

어찌 이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命門이 아니라면 다시 어디에 屬하겠습니까? 이미 이곳이 命門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男子의 精을 藏하고 女子의 胞를 繫함이 모두 歸着이 있을 것이니, 千古의 의심이 가히 頓然히 풀릴 것입니다.”

客이 말하기를, “만일 그러하다면 命門은 이미 右腎이 아닌데 다시 子宮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또 별도의 一腑가 될 것이니, 무슨 經에 배속되며 脈은 어느 부위에 있게 됩니까?”

말하기를, “十二經의 表裡는 陰陽이 진실로 이미 配定되어 있거늘 만약 命門으로 다시 한 經에 配定한다면, 이는 腎藏은 오직 하나 뿐인데 그 經은 둘이 있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이러한 이치는 없습니다. 또한 命門은 子宮의 門戶이고 子宮은 腎藏이 精을 藏하는 府인데, 腎藏은 先天眞一之氣를 主하는 北門鎖鑰의 司입니다. 腎藏이 鎖鑰(자물쇠와 열쇠)이 되는 까닭은 바로 命門의 閉固에 힘입어서 坎中の 眞陽을 蓄하여 一身의 生化하는 原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命門은 腎과 본래 같은 一氣로서, 道經에서는 이것이 上下左右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그 位가 북극성을 象하고 있다 하고, 이름을 ‘丹田’이라고 합니다.

대저 丹은 홀(奇)입니다. 그러므로 北方天一의 藏을 거느리며, 그 外臉인 命門一穴이 바로 督脈十四椎中에 보입니다. 이 命門은 원래 腎에 屬한 것으로 별도로 一腑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三十九難에도 말하기를, ‘命門其氣與腎通.’이라고 하였으니, 또한 腎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五藏이 각기 하나씩인데 오직 腎만 둘이니, 이미 둘인 바

에는 象도 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하건대, 耳目이 한가지이지만 왼쪽이 오른쪽보다 밝고 手足이 한가지이지만 오른쪽이 왼쪽보다 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北方의 神은 蛇武가 있어, 蛇는 陽을 主하고 武는 陰을 主하며, 兩尺의 脈은 左右로 나뉘어, 左는 水를 主하고 右는 火를 主합니다. 대저 左陽右陰이 이치의 떼뻗함이어늘, 이에 左水右火라 함은 또한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개 腎은 子中에 屬하여 氣가 冬至에 應하는데, 冬至는 陰陽이 가운데서 나뉘는 자리에 위치하나, 冬至 이후로는 하늘이 左旋하여 때가 봄이 되고, 斗杓<sup>44)</sup>는 析木(尾星의 別稱)에 健하며, 日月은 右行하여 亥에서 申하니, 辰次<sup>45)</sup>가 一宮을 물러나서 태양은 점차 右로 行하고 사람 또한 이에 應하므로 水位의 右는 火가 됩니다. 또한 사람의 四體는 本來 땅에 응하는데 땅의 剛함은 西北에 있으므로, 또한 마땅히 右尺이 陽이 되는 것이 이치에 마땅히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脈經>에 腎藏의 脈을 兩尺에 배속시켰습니다. 다만, 마땅히 左尺은 腎中の 眞陰을 主하고 右尺은 腎中の 眞陽을 主하는데, 命門은 陽氣의 根이 되므로 三焦相火의 脈을 따라서 右尺에 함께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可하지만, 만약 左腎이 腎이고 右腎은 命門이라고 말한다면 可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만약 나누어서 말한다면 左는 水에 屬하고 右는 火에 屬하므로 命門은 마땅히 右尺에 附해야 하며, 승해서 말한다면 命門은 北極星을 象하여 消長の 樞紐가 되니, 左는 升을 主하고 右는 降을 主하며, 前은 陰을 主하고 後는 陽을 主합니다. 그러므로 水의 象이 밖은 어두우나 안은 밝으며, 坎卦(☵)에 안에 奇(一)가 하나

있고 밖에 偶(--)가 들어 있는 바, 腎이 둘이라는 것은 坎卦의 밖에 있는 (두개의) 偶(陰爻)를 가리키며, 命門이 하나라는 것은 坎卦의 가운데에 있는 奇(陽爻)를 가리킵니다. 하나로서 둘을 거느리고 둘이 하나를 싸고 있으니, 이것이 命門이 兩腎을 모두 主하고 兩腎이 모두 命門에 屬함입니다. 그러므로 命門은 水火의 府가 되고 陰陽의 집이 되며, 精氣의 바다가 되고 死生の 寶가 됩니다. 만약 命門이 虧損되면, 五臟六府가 모두 믿는 바를 잃게 되어 陰陽의 病變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게 됩니다. 그 까닭은 바로 天地의 發生하는 道가 아래에서 시작되고 끝나며, 만물의 盛하고 衰하는 이치와 盈虛가 根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許學士<sup>46)</sup>는 홀로 補腎할 줄 알았고 薛立齋는 대양 命門을 重히 했으니, 두 賢者의 高見은 보통사람을 훨씬 뛰어 넘는데, 아마 王太僕의 이른바 ‘壯水之主, 益火之原.’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性名의 大本이니, 醫師가 이것조차도 모른다면 어찌 足히 이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申明하여 그 뜻을 넓혔는데, 前後 諸論이 비록 臆見이 많더라도 모두 經意를 헤아림이지 감히 망녕되이 말한 것은 아니니, 무릇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이가 裁正해 주길 바랍니다.” (<類經附翼·求正錄>)

## (2) 「論右腎爲命門」

內經엔 처음부터 命門의 이름이 없는 바, 命門의 說은 越人의 三十六難에, “腎이 둘인데 왼쪽은 腎이고 오른쪽은 命門이니, 男子는 精을 藏하고 女子는 胞를 繫한다.”고 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대저 右腎이 이미 남자의 精을 藏한다면 左腎은 장차 무엇을 藏하며,

女子의 胞는 어찌 유독 오른쪽에 偏繫하겠는가? 이것이 그 說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命門은 兩腎의 가운데에 屬하여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바, 곧 婦人의 子宮의 門戶이다. 子宮은 腎藏이 精을 藏하는 府이며 關元·氣海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男精女血이 모두 여기에 모여 先天眞一의 氣가 되는 바, 所謂 坎中の 眞陽으로 一身의 生化하는 原이 된다. 이 命門은 兩腎의 중간에 있으며 우측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없다. 兩腎은 水에 屬하며 陰陽의 나뉘어 있으나, 命門은 火에 屬하며 二陰의 가운데에 있다. 그러므로 <脈經>에 腎脈을 兩尺에 配屬시켰는데, 다만 마땅히 “左尺은 眞陰을 主하고 右尺은 眞陽을 主하는데, 命門은 陽氣의 뿌리가 되어 三焦相火를 따라 함께 右尺에 나타난다.”고 말한다면 可하지만, 만약 “左腎은 腎을 主하고 右腎 한 쪽은 命門이 된다.”고 이룬다면, 이는 千古의 訛傳된 病弊로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점이다.<〈質疑錄〉〉

### (3) 「論命門之火不可偏於右尺」

人生은 兩腎이 있고 兩腎은 左右尺에서 아울러 진찰하는데, 命門은 兩腎의 가운데에 있다. 이른바 命門의 火라고 하는 것은 곧 兩腎中の 元氣인데, 元氣는 命門에서 生하되 右에 치우치지 않는다. <難經>에서, 腎이 둘이 있는데 左는 腎이고 右는 命門이라고 한 데서부터 命門이 드디어 右에 專屬되게 되었는데, 華元化가 이를 因하여 비로소 左腎은 水에 屬하고 右腎은 火에 屬한다고 分屬시킨 까닭으로 命門의 火를 右腎에 歸屬시켰다. 후세의 醫者가 그 뜻을 詳考하지 아니하고 命門의 火를 論하기만 하면, 반드시 오른쪽 尺

部 진찰을 한다고 하니, 어찌 兩尺이 兩腎이 됨을 알겠는가? 腎은 水이며 모두 精을 藏하는 집(舍)이다. 그러므로 越人이 이르기를 命門은 男子가 精을 藏하는 데라고 하였다. 精은 水에 屬하고 火에 屬하지 아니하나, 火가 水中에 있으니, 이른바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어찌 可히 命門의 火를 右尺에서만 진찰하겠는가? 온 세상이 夢夢하니 可히 비웃을만 하다. 그렇다면 命門의 火를 論하는 者는 마땅히 어디에서 진찰해야 하는가? 곧 兩尺에서 진찰함이 옳으니, 兩尺의 強弱으로써 命門火의 衰旺如否를 징험할 수 있다. 만약 右尺의 腎으로 命門을 論하여 左尺의 腎을 빠뜨린다면, 이는 習俗의 병폐이니, 가히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男子의 命門은 右에 있고 女子의 命門은 左에 있다는 說이 있는데, 丈夫는 右가 命門이 되고 左가 腎이 되며, 女子는 左가 命門이 되고 右가 腎이 된다고 말한다면, 또한 顛倒乖離되어 可히 稽考할 수가 없을 것이다.<〈質疑錄〉〉

### (4) 「十二藏脈候部位論」

(前略)<sup>47)</sup> 命門은 腎의 所屬이므로 脈候도 마땅히 腎을 따라야 한다. 腎은 하나인데 어찌 해서 兩尺에서 살피는가? 腎中の 元陰은 마땅히 左尺에서 살피야 하고, 腎中の 元陽은 右尺에서 살피야 한다. 陰은 靜함이 마땅하므로 左는 浮豁함을 꺼리며, 陽은 衰함을 畏하므로 右는 細微함을 꺼린다. 그러나 命門의 氣는 陽으로 爲主하므로, 마땅히 右尺에 附候하여서 그 衰旺을 살피면 매우 잘 맞는다. (後略)<sup>47)</sup> <〈類經附翼·求正錄〉〉

## (5) 「命門餘義」

命門의 뜻은 〈內經〉엔 본래 없으며, 오직 越人이 이르기를,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라 하였는데, 그 뜻이 미진함이 있고 또 의심할만한 점이 있어서, 내가 〈三焦·包絡·命門辨〉을 지어 〈類經〉의 末尾에 실었는데, 이미 그 대개는 다 말한 것 같으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어서 後人을 깨우치기에 부족할까 염려되어, 이에 다시 그 蘊意를 條目을 들어 다 말하고자 한다.

一. 命門은 精血의 바다요, 脾胃는 水穀의 바다로서, 모두 五藏六府의 根本이 된다. 그러나 命門은 元氣의 뿌리가 되고 水火의 집이 된다. 五藏의 陰氣가 이것이 아니면 능히 滋하지 못하고, 五藏의 陽氣가 이것이 아니면 능히 發하지 못하며, 脾胃가 中州의 土이지만 火가 아니면 능히 生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봄기운이 밑에서 비롯하면 三陽이 땅으로부터 일어난 뒤에 萬物이 化生할 수 있게 된다. 어찌 命門의 陽氣가 아래에 있어서 바로 脾胃의 어미가 됨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러므로 “脾胃는 灌注하는 근본이니 後天의 氣를 얻음이고, 命門은 化生の 根源이니 先天의 氣를 얻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가운데 본디 本末의 先後가 있음이다. 東垣이 “補腎不若補脾.”라 하고, 許知可가 “補脾不若補腎.”이라고 한 것을 보건대, 이 두 분의 說 또한 각기 이른 바가 있으니, 진실로 분별함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可히 분명해질 것이다.

一. 命門엔 火候가 있으니, 곧 元陽을 이룸이며, 곧 物을 生하는 火이다. 그러나 稟賦

에 強弱이 있으니 元陽에 盛衰가 있으며, 陰陽에 勝負가 있으니 病治에 微甚이 있다. 이것이 火候의 마땅히 분별해야 될 바이다. 이에 잠시 大綱으로써 말한다면, 一陽의 元氣가 아래로부터 올라감에 三焦의 普護(普遍散布)가 이에 각기 그 候를 나타내는데, 대개 下焦의 候는 地土와 같으니 化生の 本이요, 中焦의 候는 竈釜와 같으니 水穀의 爐요, 上焦의 候는 太虛와 같으니 神明의 宇이다.(中略)<sup>48)</sup> 이는 三焦로서 火候를 論한다면 각기 맡은 바가 있음이거늘 어찌하여 모두 命門에 歸屬시키려는가? 水中의 火가, 바로 先天眞一의 氣가 坎中에 藏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가? 이 氣가 아래로부터 올라가서 後天 胃氣와 서로 接하여 化하나니 이는 實로 生生하는 근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花萼(꽃과 꽃받침, 꽃)의 榮은 根柢에 있고, 竈釜의 用은 柴薪에 있는 것이다. 만약 眞陽이 淵源에서 發하지 않는다면 모두 無根之火에 屬할 것이니, 火로서 뿌리가 없다면 곧 病氣이지 元氣가 아니다. 그러므로 易에 雷가 地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復卦를 삼은 것이니, 可히 火의 標가 위에 있고 火의 本은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火는 그 성질이 燥를 좇아가고 寒을 極히 싫어한다. 만약 命門의 陰이 盛하면, 元陽이 畏避하여 龍火가 몸을 감출 자리가 없게 되므로 흩어져 돌아가지 못하고 煩熱·格陽等 病이 된다. 무릇 이를 잘 다스리는 자는 오직 그 성질을 좇아 다만 陽和之氣로 하여금 곧 바로 坎中에 들어가 그 굴집에 據하게 하여 招誘케 하면, 서로 同氣를 求하여 虛陽이 原에 돌아가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甘溫한 藥味가 大熱을 除去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를 이룸이다. 어찌하여

昧한 이가 이 이치에 밝지 못하여 虛陽을 實熱로 여김이 많아 이 火를 溫養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寒涼함으로 가히 火를 滅할 수 있다고만 알고 있으니, 어찌 그 살리고자 하면서도 도리어 환자로 하여금 빨리 죽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이는 實로 醫家の 제일의 活人大義이니, 만약 이 道를 좇는다면 먼저 이 이치에 밝지 않으면 안된다. 혹 三焦에 客熱·邪火가 있다면 모두 風火일 따름이니, 진실로 제거하지 않을 수 없으나 — 火를 제거함이야 어찌 어려우라마는 — 이는 본래 正氣의 火候를 이름이 아니다. 학자가 이에 마땅히 邪·正 二字에 깊이 밝다면 治生의 要를 얻은 것이다.

一. 命門엔 生氣가 있는 바, 곧 乾元不息의 기틀이니, 生함이 없다면 息할 것이다. 대개 陽은 動을 主하고 陰은 靜을 主하며, 陽은 升을 主하고 陰은 降을 主한다. 動과 升은 陽이 生氣를 얻은 까닭이요, 靜과 降은 陰이 死氣를 얻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乾元의 氣는 아래에서 비롯하여 위에서 盛하니, 升은 生을 向함이요; 坤元의 氣는 위에서 비롯하여 아래에서 盛하니, 降은 死를 向함이다. 그러므로 陽은 子中에서 生하여 前升後降하고, 陰은 午中에서 生하여 前降後升한다. 이는 陰陽의 분기점이니 서로 사이가 터럭만큼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究境에 이르러서는 千里를 어긋나게 하는 바, 死生の 柄이 실로 오직 이 털끝만한 升降의 기틀에 있을 따름이다. 또한 물이 따뜻하면 氣로 化하고 升하여 生하지 않음이 없으나, 추우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되면 降하여 죽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腎氣가 홀로 沈하면” “奉生者가 적은 것”<sup>49)</sup>이니, 곧 이것이 生氣의 이치이다. 사람의 生氣는 있

지 않은 곳이 없으니, 또한 마땅히 살피지 않을 곳이 없다. 예컨대, 藏府에도 生氣가 있고, 四肢에도 生氣가 있으며, 二便에도 生氣가 있다. 生氣는 곧 神氣인데, 神은 形으로부터 생기니, 어찌 가히 분별하지 않겠는가? 衰하는 者는 빨리 복돋운다 하더라도 오히려 生하지 못할까 두렵거늘 도리어 攻伐함을 견디겠는가? 하물며 그 심한 者에 있어서라! 그러므로 밝은 의사는 이를 살피서 반드시, 어느 곳이 이미 虧損되었으며, 어느 것이 아직 可하며, 어느 것이 능히 生氣를 더하며, 어느 것이 능히 生氣를 덜며, 어느 경우에 마땅히 먼저 生氣를 공고히 하여 病氣를 제어해야 하며, 病氣를 息하기에 힘씀을 비록 이와 같이 하나 生氣는 장차 어떠한 것이며, 현재는 비록 이와 같으나 나중에 장차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니, 만약 原始要終의 밝음이 있지 않다면 모두 寸光의 流일 뿐이다. 비록 그러하나, 이는 단지 이 道로써 말함이요, 이 道 밖에 또한 말할 것이 있다. 대저 生氣라는 것은 少陽의 氣인데, 少陽의 氣는 나아갈 뿐 물러감이 없는 氣이다. 이 氣는 어디에서 오는가? 根本에서 오지 않음이 없다. 이 氣는 어떻게 作用하는가? 이 중에 더욱 玄妙한 진리가 있으니, 대개 人生의 貴하게 여길 바는 오직 이 氣일 뿐이다. 出入하는 權이 呼吸에 있으니 이는 氣數의 寶藏이며, 河車의 濟함은 轆轤(도르레, 滑車)에 있으니 실로 轉運의 神機이다. 그 나아감과 물러감, 그 얻음과 잃음이 모두 살아 숨쉬는 사이에 있으니, 수명 장단의 길(彭殤之途)이 이에서 관별난다. 經에 가로되, “得神者昌, 失神者亡.”<sup>50)</sup>이라 했는데, 곧 이 生氣를 이름이다. 내가 이에 傷害된 이를 본 것이 가히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특별히 그 뜻을 이에 밝히는 것이다.

一. 命門엔 門戶가 있는 바, 一身의 공고한 關이 된다. 經에 가로되, “倉廩不藏者, 是門戶不要也, 水泉不止者, 是膀胱不藏也. 得守者生, 失守者死.”<sup>51)</sup> 라 하고, 또 가로되, “腎者, 胃之關也.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sup>52)</sup> 라 하고, 또 가로되, “北方黑色, 入通于腎, 開竅于二陰.”<sup>53)</sup>이라 한 바, 이에 可히 北門의 主가 모두 腎에 있고, 腎의 政令은 모두 命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命門은 北極의 樞가 되어 陰陽의 權柄을 司하는 바, 陰陽이 和하면 出入이 有常하고 陰陽이 病들면 啓閉가 순서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癰閉不通이 되는 者가 있으니 陰精水枯하여 津액이 메말라 行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滑泄不禁이 되는 者가 있으니 陽虛火敗하여 收攝이 無主하기 때문이다. 陰精이 이미 고갈되었다면 水를 壯하게 함이 아니면 반드시 능히 行하지 못하고, 陽氣가 이미 虛하다면 火를 益함이 아니면 반드시 능히 固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그 法이다. 그러나 精은 氣가 없으면 行하지 못하고 氣는 水가 없으면 化하지 못하니, 이는 그 가운데에 또한 可히 나누고 나누지 못할 妙用이 있음이라, 또한 지혜 있는 이의 神悟에 있으니, 可히 붓과 종이로는 말을 다하지 못할 것이 있다.

一. 命門엔 陰虛가 있으니 邪火가 偏勝한 때문이요, 邪火의 偏勝은 眞水의 不足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病됨이 혹은 煩渴이 되기도 하고, 혹은 骨蒸이 되기도 하고, 혹은 咳血·吐血이 되기도 하고, 혹은 淋濁遺泄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록 분명히 火證이긴 하나 본래 邪熱·實熱에 비할 것이 아니다. 대

개 實熱의 火는 그 음이 느리고 반드시 積損한 원인이 있으니, 이것이 虛火·實火의 크게 같지 않은 점이다. 무릇 火를 다스리는 자는 實熱의 火는 可히 寒으로 이길 수 있고 가히 水로서 꺾을 수 있으니, 이른바 “熱者寒之”라 함이요, 虛熱의 火는 可히 寒으로 이기지 못하니 이른바 “勞者溫之”라 함이다. 왜인가? 대개 虛火는 그 水가 없음을 因하니, 다만 마땅히 水를 補하여서 火에 짝하게 하면, 陰陽이 골라져서 病이 저절로 가히 나올 수 있지만, 만약 火를 제거함으로써 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미 虧損된 水라 반드시 가히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火를 아울러서 제거한다면, 어찌 陰陽이 모두 敗하지 않겠는가? 또한 苦寒한 藥物은 전혀 升騰하는 生氣가 없으니, 그것으로 虛를 補하고자 함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다스림은, 이에 반드시 甘平한 약으로 오로지 眞陰을 補하는데, 이는 비록 반드시 곧 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可히 害가 없는 바, 그런 뒤에 그 가히 乘할 것을 살펴서 혹 잠깐 淸解하거나 혹 점차 溫潤함을 더하여 반드시 生氣가 점차 돌아오게 하여, 거의 脾가 可히 튼튼해지면 熱이 可히 물러나고, 肺가 점차 潤해지면 기침이 점차 편안해지나니, 바로 점차 회복되는 좋은 징조라 生을 얻는 者가 많다. 만약 단지 知母·黃柏이 補陰한다고 안다면, 더욱 그 腎을 敗하고 泄瀉, 食減을 招來하여 반드시 그 위태함을 速하게 할 것이다.(〈景岳全書·傳忠錄下〉)

#### (6) 「大寶論」

“(前略) 이를 말미암아 말할진대, 하늘의 大寶는 단지 이 一丸이요 사람의 大寶는

단지 이 一息·眞陽임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陽常有餘’라 하여 苦寒한 藥物로 이 陽氣를 伐하려 합니까? 保生코자 하는 이가 가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客이 가로되 “지극합니다! 제가 生의 來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道가 있는 바엔 어찌 그 法이 없겠습니까? 이 陽을 견고히 하려면 計策을 어디서 내야 합니까?” 가로되 “무엇이 근본입니까?” 가로되 “命門이 이것입니다.” 가로되 “제가 듣기로는, 土生萬物하므로 脾胃가 五藏六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선생께서는 命門이라고 하니,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로되 “사람이 처음 生할 때에 生命이 臍帶를 말미암고, 臍는 丹田에 接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氣海이니 곧 命門입니다. 이른바 命門이라고 한 것은, 先天의 나를 生한 것이 이를 말미암아 받았음이고, 後天의 내가 生하는 것이 이를 말미암아 栽培됩니다. 대저 生의 門이 곧 死의 戶이니, 사람의 盛衰安危가 모두 여기에 매여 있는 까닭은 그것이 生氣의 源이 되기 때문이며, 氣가 強하면 強해지고 氣가 衰하면 病이 드니, 이곳이 비록 至陰의 자리이나 實은 元陽의 집입니다. 저 脾胃 따위는 곧 後天 水穀의 本이니, 오히려 元陽의 子에 속할 뿐입니다. 先生께서 醫를 알고자 할진대 아무쪼록 이 낳아준 어미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後略)” (〈類經附翼·求正錄〉)

#### (7) 「眞陰論」

(前略) 그러나 經에 가로되,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라 하였다. 그러므로 五液은 모두 精에 돌아가고 五精은 모두 腎

에서 거느린다. 腎에는 精室이 있는데 이를 命門이라 하는 바, 天一의 居하는 곳이니 곧 眞陰의 府이다. 精이 여기에 藏하는데 精은 곧 陰中の 水요, 氣가 여기에서 化하는데 氣는 곧 陰中の 火이다. 命門은 兩腎의 가운데에 居하니 곧 人身의 太極인데, 太極으로 말미암아 兩儀를 生하니, 水火가 여기에 갖추어지고 消長이 여기에 매이게 된다. 그러므로 受生의 처음이 되고 性命의 本이 된다. 眞陰을 다스리고자 하면서 命門을 버린다면 그 다스림이 아니니, 이 眞陰의 藏을 가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이른바 眞陰의 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水火의 功을 하나라도 缺해서는 안된다. 命門의 火를 元氣라 하고, 命門의 水를 元精이라고 한다. 五液이 充滿하면 形體도 힘입어 強壯해지고, 五氣가 다스려지면 營衛가 힘입어 和調하게 된다. 이 命門의 水火는 곧 十二藏의 化源이 된다. 그러므로 心이 이에 힘입으면 君火가 썩 밝게 되며, 肺가 이에 힘입으면 治節이 썩 行하게 되며, 脾胃가 이에 힘입으면 倉廩의 富를 이루게 되며, 肝膽이 이에 힘입으면 謀慮의 本을 資하게 되며, 膀胱이 이에 힘입으면 三焦가 氣化하게 되며, 大小腸이 이에 힘입으면 傳導가 스스로 나뉘게 된다. 이것이 비록 腎臟의 技巧라고 하나 실은 모두 眞陰의 用이니, 가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이른바 眞陰의 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陰氣는 본래 有餘함이 없으니 陰病은 오직 모두 不足한 것이다. 예컨대 陰이 下에서 勝한 것은 원래 陰이 盛한 것이 아니라 命門의 火가 衰했기 때문이며, 陽이 標에서 勝한 것은 원래 陽이 盛한 것이 아니라 命門의 水가 衰

했기 때문이다. 水가 그 根源에서 虧하면 陰虛의 病이 疊出하고, 火가 그 根本에서 衰하면 陽虛의 證이 迭生하게 된다.(中略)<sup>54)</sup>

王太僕이 말하기를, “寒之不寒, 責其無水, 熱之不熱, 責其無火.”라 했는데, 無火無水가 (그 원인이) 모두 命門에 있으니 모두 陰虛의 病이라 하는 바, 가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眞陰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릇 亂은 말미암아 일어난 바가 있고 病은 말미암아 생긴 데가 있으니, 病을 다스림엔 반드시 마땅히 그 根本을 求해야 한다. 대저 五藏의 本은 본래 命門에 있고 神氣의 本은 본래 元精에 있으니, 이는 곧 眞陰을 이룬다. 王太僕이 말하기를, “壯水之主, 以制陽光, 益火之元, 以消陰翳.”라 한 것이 바로 이를 이룬다.(後略)<sup>55)</sup>(〈類經附翼·求正錄〉)

## 2. 景岳의 命門學說에 대한 考察

以上の 論述을 통해서 景岳의 命門學說을 考察,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命門의 字意를, 景岳은 “夫身形未生之初, 父母交會之際, 男之施由此門而出, 女之攝由此門而入, 及胎元既足, 復由此出. 其出其入, 皆由此門, 謂非先天立命之門戶乎? 及乎其生, 則三焦精氣, 皆藏乎此, 故〈金丹大要〉曰: ‘氣聚則精盈, 精盈則氣盛.’… 然則精去則氣去, 氣去則命去, 其固其去, 皆由此門, 謂非後天立命之門戶乎?”<sup>(1)</sup>라 하고, 또 “所謂命門者, 先天之生我者, 由此而受; 後天之我生者, 由此而裁也.”<sup>(6)</sup>라고 하여, 先天의 生命을 이를 통해서 받고 後天의 生命維持 또한 이를 말미암아서 되므로 先天·後天의 立命하는 門戶라고 풀이하였다.

命門의 位置는 兩腎 中間에 있으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고 하여 〈類經〉의 右腎命門說에 대해 반대했으며,<sup>(2)</sup> 命門의 實質을 子宮의 門戶라고 하였다. 景岳은 子宮을 男女의 通稱이라 전제하고, 그 아래에 一門이 있는데, 여자에 있어서는 손으로 더듬어서 가히 알 수 있고(俗名으로 產門이라고 함), 남자에 있어서는 精泄時에 關關이 있음을 스스로 知覺할 수 있는 바, 이것이 命門이라고 하였다.<sup>(1)</sup> 그리고 子宮을 道家에서는 先天眞一의 氣가 이에 藏하고 있다 하여 丹田이라 하고, 醫家에서는 衝任脈이 이에서 盛하면 月經이 있게 된다 하여 血室이라고 하며, 기타 異名 또는 俗名으로 子戶·子腸·氣海라고도 하는 바,<sup>(1)</sup> 구체적으로 直腸의 앞, 膀胱의 뒤, 氣海·關元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였다.<sup>(1)</sup>

그런데 景岳은 命門을 ‘子宮의 門戶’라고 하여 ‘子宮’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또한 “子宮者, 腎藏藏精之府也. …男精女血, 皆聚于此, 爲先天眞一元氣, 所謂坎中之眞陽, 爲一身生化之原.”<sup>(2)</sup>이라 하고, 또 “命門爲生化之源, 得先天之氣也.”<sup>(5)</sup>·“命門爲精血之海, …爲元氣之根, 爲水火之宅.”<sup>(5)</sup>·“經曰: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液皆歸乎精, 五精皆統乎腎, 腎有精室, 是曰命門, 爲天一所居.”<sup>(7)</sup>라고 하여 其實 命門이 子宮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命門의 ‘門’字의 뜻을 드러내고자 ‘門戶’라고 하여 紐앙스를 약간 달리한 듯하다.

命門과 腎의 關係에 대해서는, “命門原屬於腎, 非又別爲一府也.”<sup>(1)</sup>라 하고, 또 “經曰: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液皆歸乎精, 五精皆統乎腎, 腎有精室, 是曰命門.”<sup>(7)</sup>이라고 하여, 命門이 腎의 附屬기관인 것

처럼 말한 부분도 있으나, 또한 “命門之火, 謂之元氣, 命門之水, 謂之元精. … 此命門之水火, 即十二藏之化源, 故心賴之則君主以明, … 大腸賴之則傳導自分, 此雖云腎藏之技巧, 而實皆眞陰之用也.”<sup>(7)</sup> · “命門有門戶, 爲一身之鞏固之關也. … 是可見北門之主, 總在乎腎, 而腎之政令, 則總在乎命門, 皆命門爲北辰之樞, 司陰陽之柄.”<sup>(5)</sup> · “腎藏者, 主先天眞一之氣, 北門鎖鑰之司也. 而其所以爲鎖鑰者, 正賴命門之閉固, 蓋坎中之眞陽, 以爲一身生化之原也.”<sup>(1)</sup> · “腎兩者, 坎外之偶也. 命門一者, 坎中之奇也. 一以統兩, 兩以包一, 是命門總主乎兩腎, 兩腎皆屬於命門.”<sup>(1)</sup>이라 하여, 論述의 전체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腎의 작용도 궁극적으로 命門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本質上에 있어서는, “此命門與腎, 本同一氣, … 是命門原屬於腎, 非又別爲一府也. 三十九難亦曰: ‘命門其氣與腎通, 則亦不離乎腎耳.’”<sup>(1)</sup>라고 하여, 命門과 腎은 一面二면서 二而一인 密切不可分離의 관계로 인식하였다.

命門의 地位 내지 生理機能에 대하여, 景岳은 “命門居兩腎之中, 即人身之太極, … 爲受生之初, 爲性命之本.”<sup>(7)</sup> · “蓋命門爲北辰之樞, 可陰陽之柄.”<sup>(5)</sup> · “命門象極, 爲消長之樞紐.”<sup>(1)</sup> · “道經謂此, 當上下左右之中, 其位象極, 名爲丹田.”<sup>(1)</sup> · “命門者, 爲水火之府, 爲陰陽之宅, 爲精血之海, 爲死生之寶.”<sup>(1)</sup> · “命門爲精血之海, 脾胃爲水穀之海, 均爲五藏六府之本. 然命門元氣之根, 爲水火之宅, 五藏之陰氣, 非此不能發, 五藏之陽氣, 非此不能發, 而脾胃以中州之土, 非火不能生. 然必春氣始于下, 則三陽從地起, 而後萬物得以化生. 豈非命門之陽氣在下, 正爲脾胃之母乎? 吾故曰脾胃爲灌注之本, 得後天之氣也; 命門爲化生之源, 得先天之氣也. 此其中國

有本末之先後.”<sup>(5)</sup> · “此命門之水火, 即十二藏之化源, 故心賴之, 則君主以明; 肺賴之, 則治節以行; 脾胃賴之, 濟倉廩之富; 肝膽賴之, 資謀慮之本; 膀胱賴之, 則三焦氣化; 大小腸賴之, 則傳導自分. 此雖云腎藏之技巧, 而實皆眞陰之用也.”<sup>(7)</sup> · “所謂命門者, 先天之生我者, 由此而受; 後天之我生者, 由此而裁也. 夫生之門, 即死之戶. 所以人之盛衰安危, 皆繫於此者, 以其爲生氣之源, 而氣強則強, 氣衰則病. 此雖至陰之地, 而實元陽之宅. 若彼脾胃者, 乃後天水穀之本, 猶屬元陽之子耳.”<sup>(6)</sup>라 하여, 命門은 人體의 正中央에 위치하여 北極을 象하고 있는, 人身의 太極으로, 消長の 樞紐가 되고, 人身의 水火作用과 陰陽變化를 總統하여, 生命 활동의 근본인 元陽·元氣 내지 眞陽 및 元陰·元精 내지 眞陰을 蓄藏하여, 化生の 源이 되고 生氣의 源이 되며 十二藏의 化源이 되기 때문에, 五藏六府의 기능작용 내지 모든 생명활동이 이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람의 死生과 盛衰安危가 모두 이에 매여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脾胃도 命門과 함께 五藏六府의 本이 되나, 脾胃는 後天 水穀之本으로 오히려 元陽의 子에 屬할 따름이므로 命門이 脾胃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여, 本末·先後的 關係상 命門을 脾胃보다 훨씬 증시하였다.

그리고 景岳은 〈類經附翼·眞陰論〉에서 命門의 本質을 “天一所居, 眞陰之府”라고 前提한 뒤, 命門의 病을 眞陰의 病이라 하여 命門의 火衰와 水虧로 인한 諸般 病證과 病理에 대해 詳述하고, 그에 대한 治法으로서 王冰의 말을 인용하여, “壯水之主, 以鎖陽光; 益火之原, 以消陰翳.”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 구체적인 治方으로 金匱八味丸과 錢氏六味丸

및 이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創方한 右歸丸·左歸丸과 右歸飲·左歸飲을 提出하였다.

景岳의 命門學說을 要約하면 以上과 같으나 그의 命門學說을 總觀해 보면 다음과 같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그는 命門을 子宮의 門戶라 하고, 子宮을 道家에서는 丹田이라 하며, 氣海·關元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나, 현대 해부학적으로 볼 때 여자의 子宮 내지 남자의 精囊(精室)의 위치는 其實 中極穴에서의 횡단면 위로는 거의 벗어날 수 없는 바,<sup>56)</sup> 이는 丹田의 위치<sup>57)</sup>인 氣海·關元의 위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셈이 되며, 더구나 子宮의 門戶라고 할 수 있는 子宮頸部((景岳은 이를 속칭 ‘產門’이라고 한다 하였음))는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命門이 子宮인 바에는 丹田이 될 수 없고, 또한 命門이 丹田인 바에는 子宮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景岳의 命門의 기능작용에 관한 論述은 대체로 道家의 丹田에 대한 觀點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바,<sup>58)</sup> 景岳이 이해한 命門은 其實 그가 言明한 바와 같이 道家의 丹田임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이를 다시 子宮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그의 해부학적 지식의 한계와 인체에 있어서 기능적인 用은 반드시 구조적인 體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사고방식에 의해,<sup>59)</sup> 道家에서의 無形的인 丹田의 生化作用을 有形인 子宮의 生殖機能과 관련지어 생각함으로써, 丹田이 命門이며 命門이 곧 子宮(의 門戶)이라고 그릇 인식한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景岳은 命門을 腎과 分明히 구분하고 命門이 腎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썼으나, 其實 命門의 水

火 내지 元陰(元精)·元陽(元氣)과 腎中の 元陰·元陽 내지 眞陰·眞陽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다분히 混同해서 썼으며, 실제 臨床에 있어서도 命門의 病을 治한다고 내놓은 처방이 其實 腎陰과 腎陽을 補하는 藥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sup>60)</sup> 실제로 있어서 景岳의 命門學說은 腎의 生理機能을 크게 開發하고 腎中陰陽의 重要性을 강조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命門을 구태어 腎과 구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번거한 내용의 命門說을 내세운 실질적 의의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景岳의 命門學說의 참된 의의는, 그의 陰陽一體思想에 근거하여 闡發한 陰陽互根·精氣互生·形神相依의 人體 生理特性<sup>61)</sup>과 崇生思想<sup>62)</sup>을 命門과 연결시켜, 人體의 根本 生命力과 관련한 養生治病에 있어서의 중요한 腎命理論과 臨床方劑를 提出함으로써 후세 한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景岳은 “命門者, 爲水火之府, 爲陰陽之宅.”<sup>(1)</sup>이라고 말하는 한편 “兩腎屬水, 有陰陽之分, 命門屬火, 在二陰之中.”<sup>(2)</sup>이라고도 하였으며, 또한 命門의 脈診에 있어서도, “命門之火者, 當於何診, 仍診之於兩尺可也. 以兩尺之強弱, 驗命門之火衰旺爲得耳.”<sup>(3)</sup>라 하고, 다시 “至若命門者, 故爲腎之所屬, 故脈候當隨於腎, 腎一也而何以候於兩尺? 腎中之元陰, 當候於左尺, 腎中之元陽, 當候於右尺. … 然命門之氣, 以陽爲主, 故當附候於右尺, 以察其衰旺甚驗.”<sup>(4)</sup>이라 하였으며, 또한 “夫天一者, 天之一也, 一即陽也.”<sup>(6)</sup>라 하고, 다시 “腎有精室, 是曰命門, 爲天一所居, 即眞陰之府.”<sup>(7)</sup>라 하고, 이어서 命門의 水火作用을 ‘眞陰之用’

이라 하고, 命門의 水火不足으로 인한 病을 ‘眞陰의 病’ 또는 ‘陰虛의 病’이라고도 하고, 王太僕이 말한 “壯水之主, 以制陽光; 益火之元, 以消陰翳.”가 ‘眞陰의 治法’이라 했으며,<sup>(7)</sup> 또한 “故脈經以腎藏之脈配兩尺, 但當曰左尺主腎中之眞陰, 右尺主腎中之眞陽, 而命門陽氣之根, 故隨三焦相火之脈, 同見于右尺則可.”<sup>(1)</sup>라고 하였던 바, 이상의 여러 곳에서 多少間 우리는 景岳의 論理的 모순과 개념의 混沌을 엿볼 수 있다.

#### IV. 結 論

景岳의 命門學說을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우선 命門의 字義를, 景岳은 先天의 生命을 이를 통해서 받고 後天의 生命維持 또한 이를 말미암아서 되므로 先天·後天의 立命하는 門戶라고 풀이하였다.

命門의 位置는 兩腎의 가운데에 居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고 하여 〈難經〉의 右腎命門說에 반대했으며, 命門의 實質을 子宮(의 門戶)으로 인식하고, 子戶·子腸·丹田·血室 등을 그 異名으로 보았다.

命門의 本質 내지 地位 또는 機能에 대하여 景岳은, 命門은 인체의 正中央에 위치하여 北極을 象하고 있는 人身의 太極으로, 消長의 樞紐가 되고, 人身의 水火作用과 陰陽變化를 總統하며, 生命活動의 근본인 先天 眞一之氣를 蓄藏하여 化生의 源이 되고 生氣의 源이 되며 十二藏의 化源이 되기 때문에 五臟六腑의 機能作用 내지 모든 生命活動이 이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람의 死生과 人

身의 盛衰安危가 모두 이에 매여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脾胃도 命門과 함께 五藏六腑의 本이 되기는 하나, 脾胃는 後天 水穀之本으로 오히려 元陽의 子에 屬할 따름이므로 命門이 脾胃의 어미가 된다고 하여, 本末·先後의 관계상 命門을 脾胃보다 훨씬 중시하였으며, 命門과 腎의 關係에 대해서는 一而二면서 二而一인 密切不可分離의 關係로 인식하였으나, 理論展開上 腎의 作用도 궁극적으로는 命門의 作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眞陰論」에서 景岳은 命門의 水火不足으로 인한 諸般 病證과 病理에 대해 詳述하고 그에 대한 治法과 治方을 提示하였다.

끝으로, 그의 命門關聯論述 中에서 약간의 論理的 矛盾과 개념상의 混同을 發見할 수 있었으며, 현대 해부학적으로 볼 때, 그가 命門의 實質이라고 인식한 子宮과 丹田의 위치도 서로 일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景岳의 命門學說의 特徵은 陰陽互根·精氣互生의 基礎 위에 命門의 水火를 兼具하고 있는 生理特性을 精辟하게 全面的으로 論述하여 命門에 關한 研究를 陰陽精氣論과 긴밀하게 聯系시킨 데에 있다 할 것이다.

景岳은 人體內의 어떠한 臟腑보다도 命門의 機能을 重視하고 歷代의 어떤 醫家보다도 命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많은 論述을 加하여, 人體의 根本 生命力과 관련한 養生治病에 있어서의 重要한 腎命理論과 臨床方劑를 제출함으로써 후세 한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參 考 文 獻

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2. 滑 壽, 難經本義, 吳垣村 編, 臺灣, 世一書局印行, 民國 73 年.
3. 張介賓, 類經圖翼(附:類經附翼),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4.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上) 및 (下) 本草正.
5. 王新華 編著,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6. 張介賓, 質疑錄(王琢崖 編, 醫林指月, 臺灣, 集文書局, 1970 收載).
7.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8.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9.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0. 成都中醫學院(郭子光) 主編, 中醫各家學說, 貴州人民出版社, 1988.
11.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12. 任應秋 主編, 中醫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13. 印會河 主編, 中醫基礎理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14. 印會河·張伯訥 主編, 中醫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1989.
15. 嚴世芸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16. 李時珍, 本草綱目, 高文社, 1973.
17.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18. 孫一奎, 赤水玄珠(附:醫旨緒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9.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0. 李 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8.
21. 章虛谷, 醫門棒喝, 서울, 大星文化社, 1989.
22. 寧遠 編, 中國當代氣功精論, 人民體育出版社, 1990.
23. 表天根·洪元植, 「黃帝內經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慶熙韓醫大論文集, 1983.
24. 趙金香, 中國鶴翔莊氣功, 北京出版社, 1987.
25. 廣州中醫學院編, 新中醫, 1982 年 제 3 기, 1983 年 제 12 기, 1989 年 제 11 기.
26.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論批判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27.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編,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28. 呂光榮 主編, 中國氣功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29. 姜春華 編, 歷代中醫學家評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30. 陳士鐸 著, 洪元植 譯, 國譯石室秘錄, 서울, 書苑堂, 1984, (下), 附錄 原文.
31. 江忍庵 增批, 徐靈胎醫書全集, 卷一 難經經釋, 卷四·十五 雜病源.
32. 陳修園, 南雅堂醫書全集,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 (上), 醫學實在易, 卷一.

## 註

- 1) 表天根·洪元植, 「黃帝內經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慶熙韓醫大論文集, 1983, p.105.
- 2) 그의 先代는 四川 綿竹縣에 살았는데, 明初에 軍功으로 紹興衛指揮에 世授되어 山陰 會稽縣으로 옮겨 살았다.(( 그의 外孫 林日蔚의 「全書 略記」))
- 3) 嚴世芸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 342.  
景岳의 生卒 年代는 明確하지가 않다. 洪元植 編, 中國醫學史와 成都中醫學院 主編 및 陳大舜 主編의 中醫各家學說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으나, 姜春華 編, 歷代中醫各家評析에는 1562 - 1639 年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裘沛然 主編, 歷代中醫各家學說과 任應秋 主編, 中醫各家學說도 서기 1562 - 1639 年으로 되어 있다.
- 4) 成都中醫學院 主編, 中醫各家學說, 貴州人民出版社, 1988, p. 144.
- 5) 單味方 또는 單方이라 하며, 組成 藥物의 藥量이 많은 것을 重劑라 함.
- 6)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p. 125, 130.
- 7) 漢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編, 漢醫學大辭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249.
- 8) 번역은 直譯 위주로 하여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에만 意譯을 함. 以後 出典圖書名 또는 引用文의 우측 어깨 위에 표시한 (1) - (7)의 숫자는 本 論文의 Ⅲ - 1의 引用 論文 번호를 가리킴.
- 9) 成都中醫學院, 上揭書, p. 366.
- 10) 蕭熙, 「景岳命門學說對解決疑難病證的作用」, 廣州中醫學院編, 新中醫, 1982년 제3기, p. 7.
- 11) <難經> 이후 晉·隨·唐代 등의 醫學著作 中에는 命門에 대한 專論이 매우 적으며, 宋·金·元代의 諸醫家들은 비록 論及한 바는 있으나 아직 그리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고, 明·清代 醫家들에 이르면서 命門에 대한 깊은 研究와 爭論이 전개되어 각자 不同한 견해를 제출하게 된다.  
姜春華는, 命門學說이 金·元代에 ‘相火’의 機理에 대해 깊이 探討하고 아울러 ‘相火’의 生理·病理와 腎·命門을 聯結시킨 데서부터 점차 發展, 形成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命門學說이 道家의 養生理論의 영향을 받아 점차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보는 學者도 있다.  
以上 印會河·張伯訥 主編, 中醫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1989, p. 98, 103.
- 12) 蕭熙, 上揭論文, p. 7 참조.
- 13) 成都中醫學院 主編, 上揭書, p. 366.  
現在까지의 命門에 關한 實驗 研究 結果를 보면, 대체로 命門(腎)의 陰陽偏勝偏衰는, 內分泌機能·植物神經機能 및 Energy 代謝에 대한 영향에 일정한 規律性이 있으며, 命門(腎)의 陰虛陽勝火旺者는 腎上腺皮質 Hormon 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腎臟機能가 향상되며 交感神經의 흥분성이 增強되고 Energy 代謝가 增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成都中醫學院 主編, 上揭書, pp. 376 - 378 참조.  
한편, 王新華·徐輝光 등은, 命門은 단순

- 히 어느 일부 解剖部位나 實質性 臟器가 될 수 없으며, 또한 兩腎의 總稱도 아니고, 實質上 腎臟機能의 하나라고 주장한다.((印會河·張伯訥, 上揭書, p.103))
- 14) 成都中醫學院, 上揭書, p.366 참조.
- 15) 印會河 主編, 中醫基礎理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42 참조.
- 16) 嚴世芸 主編, 上揭書, pp.320-321.
- 17) 印會河 主編, 上揭書, p.42.
- 18) 李 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p.355-356.
- 19) 上揭書, pp.362-365.
- 20)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10.
- 2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1183-1185.
- 22) 嚴世芸 主編, 上揭書, p.323.
- 23) 孫一奎, 上揭書, pp.1185-1186.
- 24) 上揭書, p.1007.
- 25)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8.
- 26) 小心命門說是 其實 明·李時珍(서기 1518-1593)이 처음 提出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論述이 太簡하다. <本草綱目·卷三十 果部 山果類>의 胡桃條 참조.
- 27) 成都中醫學院 主編, 上揭書, p.138.
- 28) 其實 子宮命門說是 張景岳에 앞서 이 미 李東垣(서기 1180-1251)에 의해 提出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東垣은 <蘭室秘藏·斑疹論>에서, “夫胞者, 一名赤宮, 一名丹田, 一名命門. 主男子藏精施化, 婦人繫胞有孕, 俱爲生化之源.”이라고만 하여 그 論述이 너무 簡疏하다.((成都中醫學院 主編, 上揭書, p.370))
- 29) 印會河 主編, 上揭書, p.43.
- 30) 文獻上 命門에 대해서 景岳이 가장 많은 양의 專門的인 論述을 하고 있으며, 趙獻可가 거의 그에 필적하고, 孫一奎가 그 다음으로 體系的인 專門論述을 하고 있다.
- 31) 陳士鐸著, 洪元植譯, 國譯石室秘錄, 서울, 書苑堂, 1984, (下)부록 원문, p.55 및 王新華 編著,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109 참조.
- 32) 王新華 編著, 上揭書, pp.160-161 및 成都中醫學院 主編, 上揭書, p.371.
- 33) 徐靈胎 醫書全集 卷四, 十五雜病源, pp.151-155 및 王新華 編著, 上揭書, p.189 참조.
- 34) 陳修園, 南雅堂醫書全集,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上), 醫學實在易 卷一, 또는 王新華 編著, 上揭書, p.191 참조.
- 35) 命門을 李梴은 “相火之臟”·“屬火”, 虞天民은 “水中之火(相火)”, 李時珍은 “相火之主”, 趙獻可는 “無形屬火”, 陳士鐸은 “先天之火”, 徐大椿은 “眞火之宅”, 孫一奎는 “坎中之陽(腎間動氣)”, 周省悟는 “人身之眞陽·腎中之元陽”으로 各各 보았으며, 張景岳은 “水火之府”로 보면서도 火 내지 陽의 속성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强하다.
- 36) 三焦·包絡에 관하여 論述한 부분임.
- 37) 腦의 中央. 睛明穴이 眼內眥角 內側 五分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精明所俠之處, 是爲腦心”이라 함.
- 38) <難經·七難>의 滑伯仁 注에, “首篇稱‘經言’二字, 考之<靈>·<素>, 無所見, 豈越人之時, 別有所謂上古文字耶? 將<內經>有之, 而後世脫簡耶? 是不可知也.”

- 라 하였음.
- 39) 晋代에 나온 道經으로 丹田에 관한 많은 論述과 練功 等에 關한 내용이 실려 있음.
- 40) 幽闕: 腎 또는 兩腎間을 가리킴.
- 41) 九還七返: 一日 中의 天地의 氣의 升降이 寅時부터 申時까지의 7개 時辰을 경과함을 七返이라 하고 다시 坤(戊)時까지 경과함을 九還이라고 함. 이는 人體의 經氣의 升降이 天地의 氣의 升降과 相應함을 말해줌. ((中國氣功大辭典))
- 42) 金丹大要: 元·陳致虛 著. 道士가 金石을 제련하여 약을 만들어 복용하면 가히 장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金丹임.
- 43) 七衝門: 飛門(脣), 戶門(齒), 吸門(會厭), 賁門(胃上口), 幽門(胃下口), 闌門(大腸·小腸의 會), 魄門(肛門).
- 44) 斗柄. 북두칠성의 5-7번째의 세 별을 가리킴.
- 45) 辰次: 日과 月이 會하는 곳의 차례. 이는 곧 十二辰의 次例가 됨. <類經圖翼·卷一> 「十二辰次會中星圖」 및 「十二辰次六合解」를 참조.
- 46) 許學士: 許叔微, 字는 知可, 宋·眞州人. 저서에 <傷寒發微論>·<類證普濟本事方>이 있음.
- 47) 十二藏의 脈候部位와 그 配屬 이유에 대한 理論的 설명을 하고 있음.
- 48) 三焦의 各候에 대해 論述한 부분임.
- 49) <素問·四氣調神大論>에 나옴.
- 50) <素問·移精變氣論>에 나옴.
- 51)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옴.
- 52) <素問·水熱穴論>에 나옴.
- 53) <素問·金匱眞言論>에 나옴.
- 54) 命門의 火衰와 水虧로 인한 諸般 病證과 病理에 대해 論述한 부분임.
- 55) 眞陰의 處方에 대한 論述 부분임.
- 56) 임신의 경우에는 벗어날 수 있음.
- 57) 丹田의 위치는 文獻과 師傳에 따라 약간씩 다른 바, 예컨대 <黃庭經>에는 “臍下一寸三分”으로, <性命圭旨>에는 “臍下三寸”으로, <紅爐點雪>에는 “腎前臍後”로, <李瀕湖·奇經八脈考>에는 “臍下二寸石門穴”로 되어 있는데, 이는 練功實踐 中의 直覺體驗에서 나온 것으로 각 개인의 체질 차이에 따른 體會의 不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寧遠 編, 中國當代氣功精論, 人民體育出版社, 1990, pp. 74-81에 실려 있는, 董紹明氏論文 「丹田論」 pp. 75-77 참조.))
- 趙金香氏는, 丹田은 膀胱의 뒤 直腸의 앞에 있는 하나의 夾室로 氣가 있으면 開하고 氣가 없으면 合한다고 하였다. ((趙金香 著, 中國鶴翔莊氣功, 北京出版社, 1987, pp. 31-32, 38 참조.))
- 本稿에서는 일단 景岳의 말을 따라 氣海·關元을 丹田의 위치로 보았다.
- 58) 참고로 董紹明氏의 上揭論文 「丹田論」을 보면, “丹田은 사람의 生命의 能源으로, 生命의 氣가 이를 말미암아 發出하고 生命의 機가 이를 말미암아 發動하여, 臟腑·經絡·氣血의 新陳代謝를 鼓舞하고 流轉循環함에 自動不息하여, 生活함이 이로써 保持되고 生命이 이에 힘입어 相續되니, <難經>의 이른 바 “腎間動氣”로, 또한 “命門”이라고도 한다. 總括컨대, 人體 精氣神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59)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論批判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 18.

60) 이는 景岳의 「眞陰論」과 〈景岳全書·本草正〉의 내용을 검토·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類經附翼·眞陰論〉에서 “治水治火, 皆從腎氣, 此正重在命門.”이라 하고, 眞陰(命門)의 病에 대한 代表 治方으로 내놓은 左歸丸·右歸丸·左歸飲·右歸飲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를, “左歸丸 治眞陰腎水不足, 不能滋溉營衛, 漸至衰羸, 或虛熱往來, 自汗盜汗, …凡精髓內竭, 津液枯涸等證, 俱速宜壯水之主, 以培左腎之元陰, 此方主之.”·“右歸丸 治元陽不足, 或先天稟衰, 或勞傷過度, 以致命門火衰, 不能生土, 而脾胃虛寒, 飲食少進, …總之眞陽不足者, 必神疲氣怯, …或陽衰無子等證, 俱速宜益火之源, 以培右腎之元陽, 此方主之.”·“左歸飲 此壯水之劑也. 凡命門之陰衰陽勝者, 宜用此飲加減主之.”·“右歸飲 此益火之劑也. 凡命門之陽衰陰勝者, 宜用此飲加減主之.”라 하여, 命門藥과 腎藥을 구분하여 쓰지 않았으며, 〈景岳全書·本草正〉을 檢索해 보아도, 위 代表 處方の 構成 藥物 中에, 오직 肉桂에 대해서만 “性熱善於助陽, …肉桂味重, 故能補命門, …”이라고 하였을 뿐, 命門을 補한다고 한 藥이 없으며, 오히려 위의 네 처방을 구성하고 있지 않은 藥物 中에 命門藥이라고 한 것이 있는바, 淫羊藿 16 “手足陽明少陰三焦命門藥也. 主陽虛陰痿…壯眞陰…”, 破故紙 85 “煖命門小腹”, 益智

仁 95 “三焦命門陽氣衰弱者, 皆宜之”, 蛇床子 104 “少陽三焦命門之藥” 五味子 107 “補元陽壯筋骨助命門”, 川椒 163 “溫命門”, 大茴香 224 “煖命門”, 葶子 231 “補肝腎命門”이라고 한 것이 전부이며, 위 네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熟地黃 41 “大補血衰, 滋培腎水, 填骨髓, 益眞陰, 專補腎中元氣, 能補五臟之眞陰”, 當歸 78 “能養營養血, 補氣生精, 安五藏, 強形體”, 山藥 222 “能健脾補虛, 澆精固腎, 治諸虛百損”, 山茱萸 161 “入肝腎二臟, 能固陰補精, 煖腰膝, 益髓興陽, 調經收血”, 枸杞子 156 “味重而純, 故能補陰, 陰中有陽, 故能補氣, 所以滋陰而不致陰衰, 助陽而能使陽旺, …此物微助陽而無動性, 故用之以助熟地最妙”, 杜仲 160 “其功入腎, 用薑汁或鹽水潤透, 炒去絲 補中強志, 壯骨添精, 腰痛殊功”, 牛膝 42 “補髓填精, 益陰活血”, 鹿角膠 266 “大補虛羸, 益血氣, 填精髓…助陰中之陽, 最爲補陰要藥”, 附子 126 “溫中強陰, 煖五臟, 回陽氣…大能引火歸源, 制伏虛熱, …能引補氣藥, 行十二經, 以追復散失之元陽; 引補血藥, 入血分, 以滋養不足之眞陰. …今之所以用之者, 正欲用其熱性, 以回元陽, 以補脾腎, 以行參耆熟地等功.”이라고만 그 藥理作用을 說明하였다.

61) 裘沛然 主編, 上揭書, p. 186.  
成都中醫學院 主編, 上揭書, p. 147, 370.  
嚴世芸 主編, 上揭書, p. 326 등을 참조.

62) 廣州中醫學院編, 新中醫, 1989년 제11기, pp. 16-18.